

광주 문화중 농구 빛나는 투혼... 전국대회 준우승

협회장기 남녀 중고농구대회
주축 부상 등 딛고 첫 결승 진출
중학 최강 서울 삼선중에 졌지만
2011년 창단 이래 최고 성적
5월 전국소년체전 입상 기대감

광주 문화중학교 농구팀이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이다. 문화중은 지난 12일 영광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8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농구대회 남중부 결승전에서 서울 삼선중에 60-113으로 패배했다.

문화중은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삼선중에 넘어지지 못했으나 창단 처음으로 결승 무대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최고 성적은 2015년 주말리그 왕중왕전 3위였다.

문화중은 오는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대 입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유민(21점·10리바운드·2스틸), 박주현(19점·10리바운드·6어시스트), 추유담(13점·3리바운드·4어시스트·4스틸)이 투혼을 발휘했으나 삼선중에 넘어지지 못했다. 삼선중 윤지훈(183cm), 윤지원(190cm), 김호원(197cm), 송영훈(193cm)은 체력과 신장에서 문화중을 압도했다.

결승에서는 졌지만 준결승까지는 승승장구했다. 예선에서 대전중을 86-56으로, 제주동중을 99-66으로 이겨 2등으로 조 1위를 차지하고 8강에 올랐다. 삼일중과의 8강은 85-77로, 휘문중과의 준결승은 71-70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중등부가 모두 참가했고, 8강 역시 예상했던 강팀들이 모두 올랐다. 삼일중, 휘문중과의 경기가 고비였다. 휘문중은 지난해 연장 접전 끝에 패했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선수들 모두 승부욕을 발휘했다. 박주현이 자유투를 얻어 모두 성공시키면서 짜릿한 1점 차 승리를 거둬 팀 창단 최초로 전국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가드 박주현(3년)은 이번 대회 총 94득점(경기당 평균 18.8점) 41리바운드 47어시스트 26스틸을 기록, 우수상을 받았다.

박찬영 문화중 농구 코치는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 뜻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주축 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동계훈련기간 손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강팀과의 연속 경기로 인한 체력적인



제48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대회에서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낸 광주 문화중학교 농구팀과 박찬영(맨 오른쪽)코치. <광주 문화중 제공>

한계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개막하는 전국소년체대대회에서 선수들이 제기량을 발휘한

다면 4강권은 물론 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 국대 선발전 개인코치로 참가 국내서 공식 지도자 활동 처음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38·한국명 안현수)이 18일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리는 2023-2024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 지도자로 나선다.

빙상계 관계자는 13일 "빅토르 안은 이번 선발전에서 복수 선수의 개인 코치를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빅토르 안은 중국 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모교인 한국체대에서 후배들을 지도했다.

이들 중 일부 선수는 빅토르 안에게 선발전 지도를 요청했고, 이에 빅토르 안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르 안이 지도자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였던 빅토르 안은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자 은퇴를 선언한 뒤 지도자로 변신했다.

빅토르 안은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코치에 응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 유도 국제대회 선발전 우승

쿠웨이트 아시안오픈 출전

광주도시철도공사 신유나가 쿠웨이트 아시안오픈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신유나는 13일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3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겸 국제대회 파견 선발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김새리(충북도청)를 결승까지 한판승으로 제압, 우승을 차지했다.

신유나는 8강에서 이재란(성동구청)을 상대로 기권승을 거둬 준결승에서 양서우(순천시청)를 만나 허벅다리후리되치기 한판승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신유나는 오는 29-30일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쿠웨이트 아시안오픈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같은 팀 김혜미는 여자 -70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혜미는 1회전에서 손승민(포항시청)에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둬 8강에서 김민경(충북도청)에게 결승까지 한판승, 준결승에서 유지영(경남도청)에 기권승을 거뒀다. 김혜미는 어깨 부상 때문에 결승에서 기권, 2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신유나(가운데)가 13일 2023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겸 국제대회 파견 선발전에 우승한 뒤 신대철 감독, 김성연 코치와 시상대에 섰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프로배구 남녀부 관중 '히비쌍곡선'

'김연경 효과'에 여자 38% 늘고 남자 34% 줄어

2022-2023시즌 프로배구 남녀부 관중이 극명하게 엇갈려 남자부 구단과 한국배구연맹(KOVO)이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구연맹이 13일 발표한 지난 시즌 시청률·관중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엄습하기 전인 2018-2019시즌과 비교해 남자부 관중 수는 32만4682명에서 21만4178명으로 34% 줄었다.

이에 반해 여자부 관중은 25만1064명에서 34만7267명으로 38% 증가했다. 남자부 평균 관중 수는 1610명, 여자부는 2611명이었다.

'김연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배구연맹의 최근 5년 치 관중 자료를 보면, 여자부 관중 수는 남자부 관중 수를 밑돌다가 김연경이 국의 생활을 마치고 복귀한 2020-2021시즌부터 역전했다.

여자배구대표팀의 도쿄올림픽 4강 진출의 후광이 프로배구에도 영향을 끼쳐 김연경이 잠시 국외로 떠난 2021-2022시즌에도 여자부 관중 수가 남자부보다 5만7000명 이상 많았고, 김연경이 완전히 귀국한 이번 시즌에는 여자부 관중 수가 무려 13만명 이상 남자부를 웃돌았다.



김연경

할 수 있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자부 인기는 다음 시즌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독보적인 스타가 없고, 대한항공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남자부에서는 화제거리가 여자부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인기를 만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난 시즌 평균 TV 시청률에서도 남자부 0.62%, 여자부 1.23%로 거의 배 차이가 났다.

6일 끝난 여자부 흥국생명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챔피언결정전 5차전 시청률은 3.40%로 역대 V리그 1위 신기록을 썼다. /연합뉴스

김연경 내일 목포서 도핑 방지 전도사로

'깨끗한 스포츠 확산' 토크쇼 참가

은퇴를 미루고 새 팀을 찾고 있는 '배구여제' 김연경(35)이 '깨끗한 스포츠 확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김연경은 14일 오후 2시 목포시 남악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2023 세계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핑 예방 교육 개선을 주제로 한 토크쇼에 참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김연경과 체조 선수 김나라, 핸드볼 선수 홍정호는 도핑 방지 토크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계도핑방지의 날'은 2014년 이후 전 세계 스포츠계가 매년 4월 중 하주를 지정해 깨끗한 스포츠 확산에 동참하는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연다.

문화부는 "올해부터 신규 도핑검사 기법인 건조혈반검사를 선제 도입할 예정이고 의도하지 않은 금지약물 사용을 막기 위해 보건 의료인을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연경은 최근 열린 프로배구 시상식을 마친 뒤 현역 선수 생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원소속팀 흥국생명하고 계약이 만료된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로 복수의 구단과 입단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 간판' 황선우 이번엔 배영 도전

제주 한라배 배영 100m 출전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강원도청)가 선수 등록 후 처음으로 '배영 공식 경기'를 치른다.

황선우는 14일 제주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개막하는 제18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 남자 자유형 50m와 배영 100m에 출전한다.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와 100m에서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낸 황선우에게 한라배 출전은 '훈련' 성격이 짙다.

한라배 자유형 50m는 자유형 100m와 200m를 대비한 '스피드 훈련'의 연장선이다. 배영을 택한 건, 다소 의외다.

50m씩 물살을 가르긴 했다.

그러나 고교 시절에도 배영 종목에는 출전하지 않았고, 실업팀에 입단한 지난해부터는 개인혼영 경기도 치르지 않았다.

이번 한라배에서 수영 팬들은 낯선 '황선우의 배영 동작'을 볼 수 있다.

황선우는 한라배가 끝나면 진천선수촌에서 오는 7월 14일 개막하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의 훈련도 고려했지만, 일단 진천선수촌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기로 했다. 훈련 중에 국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경북도청)은 한라배에서 개인혼영 200m와 접영 100m에 출전한 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킬링 로맨스
- 2관 킬링 로맨스
- 3관 리바운드, 에어
- 4관 스페이스 문단속, 물안에서
- 5관 존 워 4, 나는 여기에 있다
- 6관 스페이스 문단속, 겨울 속 외딴 성
- 9관 존 워 4
- 7관 새네커블 존 워 4, 더 퍼스트 슬램덩크, 나는 여기에 있다, 오토라는 남자
- 8관 새네커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소울메이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즐거움
문화
산책

